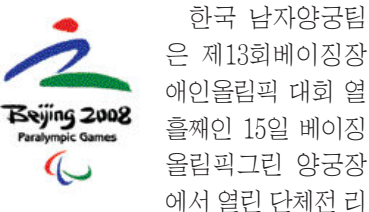




# 한국 남자양궁 무적행진 계속된다

중국 꺾고 단체전 '금'  
여자부는 아쉽게 '銀'



한국 남자양궁팀은 제13회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대회 열흘째인 15일 베이징 올림픽그린 양궁장에서 열린 단체전 리

커브 결승전에서 중국을 209-206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흥구, 윤영배, 정영주 등 3명으로 팀을 이룬 한국 남자팀은 1전에서부터 10점을 3번이나 기록하면서 54-53 근소한 차이로 앞서간 뒤 2연승에서도 10점 과녁을 두 번이나 맞춰 108-102, 6점차로 앞서갔다. 3연승에서도 6점차(161-155) 리드를 지킨 한국은 4연승 첫 3발 동안 9점, 7점, 6점을 각각 기록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해 승리를 낙였다.

그러나 한국 양궁 여자팀은 이날 열린 여자 단체전 리커브 결승전에서 중국에 177-205로 대패하면서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여자 개인 리커브 스탠딩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이화숙과 김기희, 김관숙(광주광역시)으로 구성된 한국팀은 1연승부터 흔들렸다. 두 번이나 6점을 기록하다 나섯 번째 발은 1점에 꽂혔다. 반면 중국은 1연승부터 10점 만점을 4발이나 쏘



15일 베이징 올림픽 그린양궁장에서 열린 제13회 장애인올림픽 남자 양궁 리커브 단체전에서 중국을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의 정영주, 윤영배, 이흥구(왼쪽부터)가 시상식에서 양손을 번쩍들며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서 기선을 제압했다.

한국이 2연승에서도 9점을 한발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동안 중국은 9점을 두 차례나 기록하면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

다. 3연승이 끝났을 때 점수는 128-152로 이미 24점차나 벌어지면서 승부는 이미 중국으로 기울었고 한국은 끝내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이로써 한국 양궁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땀다. 시각축구에서 한국은 스페인과 2-0로 비겨 4패 끝에 이번 대회 첫 승점(1점)을 얻었다. /연합뉴스

## ■ 장애인올림픽 다관왕

### 외다리 女수영 투아 (남아공) 올림픽 5관왕 2연패

美 여자수영 포포비치 4관왕

英 케니 사이클 4개 종목 '금'

(중국) 그리고 여자 수영의 제시카 톰(미국) 등 무려 9명이 4관왕에 올랐다.  
영국의 사이클 선수인 대런 케니는 개인 주발 등 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수영을 제외하고는 최다 관왕에 올랐다.

지금까지 사격에서 금메달 13개를 땀던 스웨덴의 명사 요나스 야콥슨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10m 공기소총 등에서 3개의 금메달을 추가해 통산 패럴림픽 금메달 개수를 16개로 늘렸다.

육상에서 비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려던 제지당하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까지 해 '베이징올림픽에서 일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룰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의족 스포르티어'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1·남아프리카공화국)도 남자 100m T44(절단 장애인)가 벌이는 트랙경기)과 200m T44에서 2관왕이 됐다.

또 뒤 투아와 같이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해 비장애인들과 당당히 겨뤘던 외팔 탁구 소녀 나탈리아 파르티카(19·폴란드)는 개인전 장에 10등급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단체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중국팀에 지면서 2관왕 달성에는 실패했다.

발을 이용해 서브를 날렸던 유명해진 미국의 휠체어 테니스 선수 니 태일러(29)는 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베이징올림픽 수영 마라톤에서 25명 중 당당히 16위를 차지, 인간승리의 감동을 연출했던 외다리 여자 수영 선수 나탈리 뒤 투아(24·남아프리카공화국)가 패럴림픽 5관왕 2연패를 달성했다.

뒤 투아는 14일 열린 여자 50m 자유형 S9(장애 9등급) 경기에서 1위로 터치 패드를 찍어 이번 대회 5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뒤 투아는 앞서 100m 접영, 100m 자유형, 200m 개인혼영, 400m 자유형 등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모조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도 수영 5관왕에 올랐다. 뒤 투아는 2012년 런던 비장애인 올림픽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생각이다.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에서 7관왕에 올랐던 미국 여자 수영선수 에린 포포비치(23)는 이번 대회에서는 6개 종목에 출전해 200m 개인혼영 SM7(장애 7등급), 100m 자유형, 100m 평형, 400m 자유형 등 4개 종목에서 금빛 물살을 갈았다. 그는 50m 접영과 50m 자유형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해 총 6개의 메달을 혼자 땀다.

이밖에도 남자 수영의 매튜 카우드리(호주), 다니엘 디아스(브라질), 마르시 베라크사(우크라이나), 장 리신

## 신지에 1타차 아쉬운 2위

일본여자프로골프선수권

신현주 5연승

신현주(28)가 제41회 일본여자프로골프 선수권대회에서 시즌 신지에(20·하이마트)를 따돌리고 우승컵을 안았다.

신현주는 지난 14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타야마진 골프장(파72·6천54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보기만 5개를 기록하는 부진한 경기를 펼쳤으나 경쟁자들도 함께 무너지면서 함께 5연승과 283타로 우승했다.

신현주는 우승 상금 1천800만엔과 함께 시즌 두번째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신지에는 4연승과 284타로 요코미네 사쿠라(일본)와 함께 공동 2위에 머물렀다.

4타차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신현주는 손쉽게 우승하는 듯 했지만 신지에가 1번(파5), 2번(파4)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는 동안 3.4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를 범해 순식간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신현주는 이후에도 보기 3개를 범하며 신지에와 연장전으로 가는 듯 했다. 초반 연속 버디 후 보기만 3개를 한 신지에는 후반들어 파를 지켜가다 18번홀(파4)에서 빼어난 보기를 범해 우승을 넘겨줬다.

박희영 4위·김인경 7위

벨마이크로 LPG클래식

안젤라 스탠퍼드(미국)가 힘겹게 생애 두번째 우승을 거뒀고 공동 4위에 오른 박희영(21·하나금융)이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적을 냈다.

스탠퍼드는 15일(한국시간) 엘라베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장(파72·6천253야드)에서 열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벨마이크로 LPG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치며 고전했지만 4라운드 함께 11연승과 277타로 우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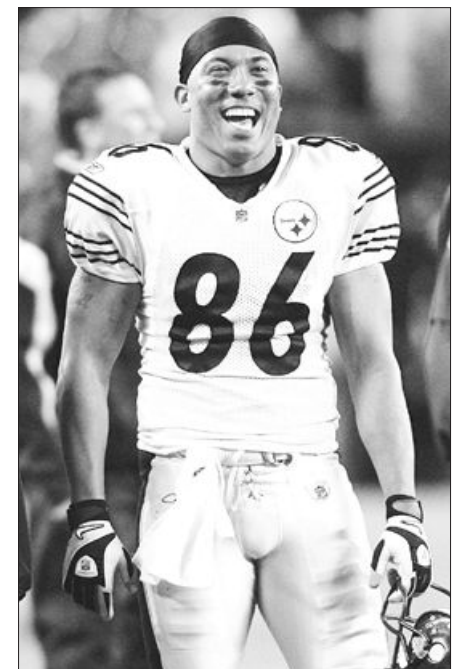
2연승과 70타를 친 박희영은 최종 함께 7연승과 281타로 공동 4위에 올라 시즌 네번째 '톱 10'에 들었다. 김인경(20·하나금융)은 박희영에게 1타 뒤진 공동 7위를 차지했다.

## NFL 워드 두 경기 연속 터치다운

미식축구(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뛰고 있는 하인스 워드(32·사진)가 2008 정규 시즌 개막 이후 두 경기 연속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워드는 1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브라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원정 경기에서 다섯 차례 패스를 받아 59야드 전진, 터치다운 1개를 기록하며 팀의 10-6 승리에 힘을 보탤다. 0-0로 맞서던 2쿼터 종료 6분32초를 남기고 벤 로슬러버거의 패스를 받은 워드는 11야드를 뛰어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다.

지난 8일 휴스턴 텍사스와 시즌 개막전에서 터치다운 2개를 해낸 데 이어 2연승의 발판도 놓은 셈이다. 피츠버그는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최근 10연승, 원정 8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상대 전적에서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2008 프로야구 <롯데·한화>(18·10·SBS스포츠), <SK·두산>(18·20·X-SPORTS·KBS N SPORTS), <KIA·우리>(21·00·MBC ESPN)

17일(수) ▲08/09 UEFA 챔피언스 리그 <마르세유·리버풀>(03·35·MBC ESPN)



- 16일(화) ▲2008 메이저리그 <미네소타·클리블랜드>(07·55·XSPORTS)
- ▲2008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요코하마>(17·50·MBC ESPN)

부동산 강매계의 지부실! 위치: 범일 앞 법조타운 113호 T.062)227-6666 011-646-2226

### 대중법률경매(주)

사원모집 투자 및 배우면서 일할분 공인중개사 환영

지역	소재지	면적(㎡)	총	감평가	최저가	비고
경기	안성	211,752	2층	1,947천	820백	
경기	안성	165,110	1층	1,947천	1,947천	
경기	안성	154,713	2층	1,947천	1,947천	
경기	안성	142,713	2층	1,947천	820백	
경기	안성	285	2층	1,947천	1,947천	
경기	안성	138,713	2층	1,947천	1,947천	
경기	안성	138,713	2층	1,947천	1,947천	
경기	안성	432,238	2층	1,947천	2,947천	
경기	안성	107,184	1층	1,947천	3,947천	
경기	안성	317,258	2층	2,947천	1,947천	
경기	안성	131,138	2층	8천	4천	
경기	안성	188,933	2층	8천	3천	
경기	안성	308,157	1층	7천	7천	
경기	안성	191,782	2층	4천	4천	
경기	안성	198,156	2층	4천	3천	
경기	안성	881,204	1층	4천	4천	
경기	안성	438,110	1층	4천	4천	
경기	안성	452,112	1층	4천	4천	
경기	안성	452,112	1층	4천	4천	
경기	안성	328,108	1층	1,947천	1,947천	
경기	안성	349,124	1층	1,947천	4,947천	
경기	안성	395,214	1층	6천	3천	
경기	안성	231,110	1층	6천	3천	
경기	안성	465,112	1층	4천	2천	
경기	안성	245,112	1층	8천	5천	
경기	안성	638,188	1층	3천	2천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주)상무랜드 (주)상무랜드 (주)상무랜드

건물

- 대607/21,352 보36억/월 3,000만원
- 대142/21,200 보1억/월세 1,000만원
- 대260/21,000 보20억/월 4,000만원
- 대200/21,900 보30억/월 2,000만원
- 대300/21,200 보4억/월 1,100만원
- 대125/21,175 보1억/월 800만원

땅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 3,421㎡(1,050평) 3.3㎡당 700만원
- 2,800㎡(850평) 3.3㎡당 1,200만원
- 727㎡(220평) 3.3㎡당 1,200만원
- 450㎡(136평) 3.3㎡당 850만원
- 330㎡(100평) 3.3㎡당 800만원

부동산

- 주거지역 800세대 0.8㎡당 877㎡ (266평) 3.3㎡당 350만원(수퍼지역)
- 2,800㎡(850평) 3.3㎡당 1,200만원
- 2,200㎡(660평) 3.3㎡당 900만원
- (상업) 대지 512㎡(155평) 20m 도로 접 3.3㎡당 265만원
- (주거) 대지 3,760㎡(1,140평) 평균 40 만원

병원·화원·수퍼·식당 기타

- (하남)상무랜드(하남)시가지(하남)시가지
- 근린지구 1,652㎡(500평) ㎡당 600 만원

모델·호텔매매·사우나

- 객실35개 용사16억 매가28억
- 객실70개 매가188억

★24시간 전화 물건 접수합니다★

### 금보부동산건설

(주)금보부동산 (주)금보부동산 (주)금보부동산

주택

- 대607/21,352 보36억/월 3,000만원
- 대142/21,200 보1억/월세 1,000만원
- 대260/21,000 보20억/월 4,000만원
- 대200/21,900 보30억/월 2,000만원
- 대300/21,200 보4억/월 1,100만원
- 대125/21,175 보1억/월 800만원

부동산

- 주거지역 800세대 0.8㎡당 877㎡ (266평) 3.3㎡당 350만원(수퍼지역)
- 2,800㎡(850평) 3.3㎡당 1,200만원
- 2,200㎡(660평) 3.3㎡당 900만원
- (상업) 대지 512㎡(155평) 20m 도로 접 3.3㎡당 265만원
- (주거) 대지 3,760㎡(1,140평) 평균 40 만원

### 합동공인중개사

011-646-3393 010-8675-6200

수원지구 4000세대 독점상권

## 아파트 상가 매매 및 임대

입점시기

2009년 3월 ~ 12월 (지금 준비하십시오)

권장업종

- 마트/제과점/미용실/세탁소
- 문구점/피자/김밥나라/청과/정육/차킨노프/떡집/건장원/안경점/편의점/학원/병원/약국

평수

60평/40평/25평/13평/9평

매매가

7000만원 ~ 8억2000만원

임대

3000만원 월세 80만원

2억원 월세 300만원

보증금과 월세 전화 조정 가능함.

대금납부 방법

계약금 지불후 상가 입점시 잔금납부, 용자가가능함. 방문상담 환영합니다